현불 논단

# 1.5℃ 목표에 맞는 기후행동

민정희
국제기후종교시민
네트워크 사무총장



**4월 22일 지구의 날 기념해**
**美·中·佛, 정상 회의 개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코로나에도 배출량 지속 증가**
**경기불황 회복에 석탄 과사용**
**한국도 마찬 가지 상황 '우려'**
**탄소 중립 선언에도 역행 중**

**가장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
**정책 변화로 대전환 이끌어야**
**불교계 실질적인 참여도 절실**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가의 정상들을 초대해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보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내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 미국 정부는 각국 정상들에게도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 상승 1.5℃ 이하 유지에 부합하는 감축 목표를 요청했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파리기후협약 탄생의 주역이었으나 트럼프의 집권 이후 아이러니하게도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를 위한 논의에서 걸림돌이 되어왔다. 따라서 이번 기후정상회의는 트럼프 집권 이후 실종된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가량 감소했으나 4월 20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글로벌 에너지 리뷰〉에 따르면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해가 될 전망이다. 가장 많이 증가했던 해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감소했다가 6% 증가했던 2010년이었다. 기온상승을 1.5℃ 이하로 유지하려면 2030년까지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의 생산을 연간 6%씩 줄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 화석연료 생산량은 연간 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현재 재생에너지 가격이 석탄보다 하락한 상황이지만 세계 경제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불황을 회복하기 위해서 석탄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소비한 탓이라고 보았다.

한국의 경우도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8년 기준 에너지원 중 석탄의 비중은 46%로 절반에 가깝다. 지난해 유엔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는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킬 노력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주2공항, 가덕도 공항 건설 등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정부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그대로 제출함으로써, 파리기후협약이 요구하는 '진전의 원칙'을 위반해 UN으로부터 빈축을 샀다.

지구의 평균기온은 이미 1.2℃를 넘어섰다. 4월 19일 세계기상기구(WMO)는 2020년이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산불과 가뭄, 태풍 등 기후재난의 규모와 강도가 커지고 있고, 시베리아와 북극권의 지난 여름철 기온이 한국보다 높은 39℃를 기록하는 등 기후시스템의 붕괴가 예측되는 여러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목표를 제시할 것이고 일본도 2013년 대비 2030년 감축목표를 50%로 상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부도 1.5℃ 목표에 맞게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적어도 IPCC가 권고한 50% 이상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말 뿐인 온실가스 감축이 아니라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제주2공항과 가덕도공항 건설을 백지화함으로써 그동안 정부가 한 말과 행동이 일치함을 보여줘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이다. 기후위기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뿐더러 사회와 경제의 대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코로나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 노력을 보면서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온실감축과 대전환을 달성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의 의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 정도에 달렸다. 그러한 점에서 신도들의 자체 교육시스템을 갖춘 불교 종단은 불자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전환의 과정에서 주체로 서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社說

# 제8대 포교원에 거는 기대

조계종 제8대 포교원장 범해 스님의 취임식이 4월 22일 진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교육원장, 호계원장 등 다양한 직책의 취임이 있었지만 이날 취임식은 다소 독특하게 진행됐다. 줌 프로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조계종 최초 언택트 취임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취임식에 참여한 100여 사찰, 신도 · 포교단체 대표들은 포교현장에서 포교원장 취임을 축하했다.

제8대 포교원은 막중한 책임을 안고 출범하게 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전법 포교라는 1차 과제와 탈종교, 저출산 고령화, 모바일과 디지털 시대로의 급속한 전환 등 엄청난 과제가 눈 앞에 있다. 이런 가운데 8대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신도 모바일 네트워크, 불교 콘텐츠 플랫폼 개발, 고령 신도 디지털 접근성 확대 등 시대 흐름에 맞는 포교로의 변화를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서 보여줬듯, 물리적 거리를 넘어선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수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찰, 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성할 의지도 전했다.

"〈불교성전〉에는 '우리 모두는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광명의 깃발을 들고 걸어간다' 는 전도선언을 전한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취임식에서 인용한 문구다.

현대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른바 코로나 블루라고 일컬어 지는 사회적 우울에 시달리는 지금,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전법 포교에 나선다면 2000만 불자를 자랑하는 불교 중흥도 머지 않은 일일 것이다.

제8대 포교원은 제7대 포교원이 진행한 신행혁신을 이어 받고, 새로운 네트워크와 생동감 있는 포교로 나아가야 한다. 생동하는 포교를 위해서는 모바일, 온라인 방식의 적극적인 활용과 함께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차별금지법 제정, 미뤄선 안된다

우리 사회 곳곳에 내재된 차별이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국민적 공감대에도 여전히 법제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재차 환기시키는 3건의 사례가 눈길을 끈다.

먼저 남양주 수진사 방화사건을 초래한 장 모씨의 경악할 만한 발언이다. 방화범 장 씨는 지난해 수진사 산신각에 불을 지르고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최근 법정에 선 그는 "방화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 "하나님이 불 지르라면 또 불을 지르겠다" "그곳에서 순교를 하고자 했지만 안됐다" 등의 발언을 재차 쏟아내 충격을 안겼다. 결국 왜곡된 신앙심으로 인한 증오범죄로 산신각이 소실됐음을 확인한 셈이다.

장애인과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도 여전하다. 장애인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다름을 느끼지 않지만 정작 주변인과 우리사회가 장애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은 생명이 달린 문제다. 한사람의 인간이자 군인으로 살고자 했지만, 사회적 편견의 벽에 부딪혔던 故변희수 하사가 죽음으로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졌다. 이에 앞서 성소수자 차별 철폐를 위해 힘써 온 김기홍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도 같은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전한 바 있다.

차별을 개선하는 첫발은 그것이 차별임을 인지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알고 또는 모르고 행하는 수많은 차별이 있음을 인지해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 우리 사회 속에서 차별로 더 이상 상처받는 이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 성냄 · 근심, 나를 해치는 독소

인간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삶은 불안과 공포, 걱정, 고통이 함께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삶의 고통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78%가 신경증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성냄과 공포, 걱정과 극한 분노는 인체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의학계의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것은 아드레날린의 분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만성공포증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아드레날린의 분비량이 많아지면 위주머니의 근육이 이완되어 수축하지 않게 됩니다. 성냄과 근심은 우리 몸에 독소를 흘러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드레날린의 양이 적당할 때는 인체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성냄과 공포, 걱정과 극한 분노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 아드레날린의 양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만듭니다.

이처럼 마음이 몸을 지배합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마음을 잘 알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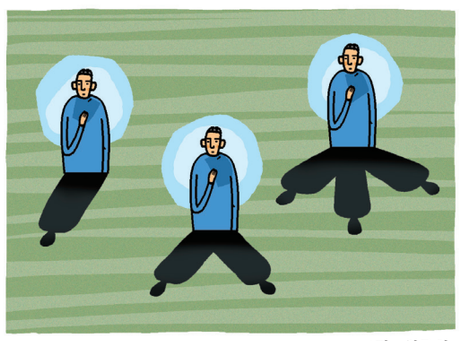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사람은 건강은 물론, 좋은 일만 생깁니다. 이와 반대로 얼굴표정을 항상 찌푸리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물론, 남도 불쾌하게 만듭니다. 항상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은 건강뿐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만 주위에 생기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남에게 불쾌한 파동(波動)을 은연중에 일으키게 되어 인간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근심과 분노를 가지고 절을 하거나 참선을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백 번, 천 번을 기도 한 들 무슨 효능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거나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선 우선, 마음을 비우는 일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걱정을 일으키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은 모두 자신의 그릇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근심걱정에 사로잡히는 것도 습관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기에 버릴 수 있습니다.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애쓰다보면 자신의 나쁜 업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독소를 만들어 내 몸을 공격하는 걱정과 근심, 불안, 공포심이 내 안에서 자리 잡지 않도록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육지장사 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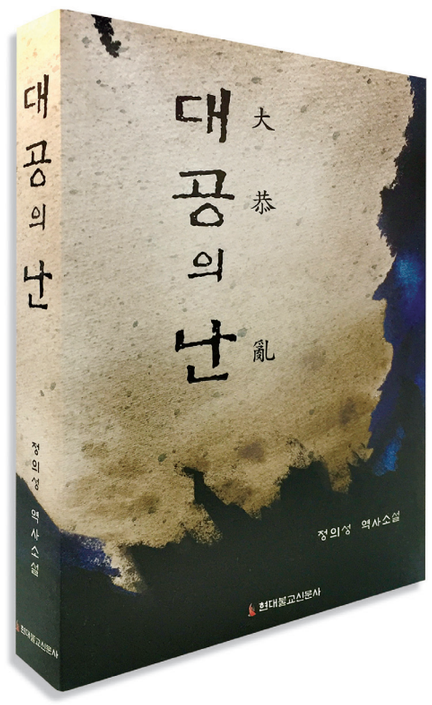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마하몰 ☎ 02)732-1520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